

# 최정희 친일문학의 특수성 연구

—‘민족’과 ‘여성’의 기표 사이에서

박수빈\*

## 요약

본 논문에서는 현재까지 발굴·소개된 최정희의 친일소설 여섯 편을 대상으로 최정희의 친일담론이 어떻게 작품을 통해 형상화되었는지 분석하고, 거기 나타난 ‘여성해방’과 ‘민족/친일’ 개념간의 쟁투를 살펴보았다. 이는 기존 연구에서 최정희 친일문학의 ‘친일적’ 측면에서 집중된 나머지 텍스트 내부에서 작동하는 여성해방의 욕망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거나 또는 ‘여성주의적’ 관점 내에서만 최정희 문학에 집중된 나머지 그의 친일문학을 소거시키거나 제대로 의미화하지 못한 경우에 대한 반동으로 구상된 것이다. 이를 위해 논문은 일제하 총동원체제가 실제로 여성을 소비한 방식과 최정희 소설에서 ‘여성-인물’이 형상화되는 방식을 비교하여 최정희 친일문학만의 특수성을 드러내려 했으며, 사실상 ‘민족’의 우위에 존재했던 ‘여성해방’의 욕망을 특별히 조명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그간 이루어진 수많은 남성작가들에 대한 연구에서 제대로 드러내지 못했던, ‘친일문학/연구’ 속 ‘여성/작가’의 지위를 명확히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최정희, 친일문학, 총동원체제, 여성해방, 인정투쟁, 신여성, 군국의 어머니

\* 성신여자대학교 인문융합연구소 전임연구원

목차

1. 친일문학 연구에서 '여성/작가'의 위치
2. 소설분석을 통해 본 '여성-형상화' 방식의 특징
3. 일제하 총동원체제가 '여성/작가'를 '실제'로 소비한 방식
4. 최정희 소설 속 여성해방과 민족/친일 개념의 쟁투
5. 최정희 친일문학의 특수성 : 결론을 대신하여

## 1. 친일문학 연구에서 '여성/작가'의 위치

친일문학의 논의에 젠더의 관점을 첨부하는 일은 단순히 여성작가의 친일 여부를 가늠하거나 친일의 내용을 고발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에 있다. 식민화된 남성 주체에 의해 배제되었던 여성이 비록 일본의 대동아 공영권을 강조하는 정책에 포섭되는 과정에서이긴 하지만 **국민으로 호명되고 주체로 선택되는 경험을 했다는 사실**은, 여성 작가의 친일이 일제 정책의 단순한 추수의 결과가 아니라 일정 정도 내적 자발성에 기인한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sup>1)</sup>

심진경의 이 대목을 통해, 여성작가에게 있어 일제의 식민지배정책은 일종의 “군국주의 체제하에서 여성의 공적 진출에 대한 환상을 부추겼던 친일 담론”<sup>2)</sup>으로 기능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알게 된다. 특히 ‘민족 개념에 앞서는 ‘젠더 해방’의 기치를 갖고 있던 여성 작가에게라면, 이는 두말할 나위 없이 매우 매력적인 담론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여성

1) 심진경, 『여성작가 친일소설 연구』, 『배달말』32, 배달말학회, 2003, 83면.

심진경의 연구는 본 논문의 논의를 촉발하는 데 중요한 참조점이 되어주었으나 실질적으로 텍스트 분석을 통해 결론을 이끌어내기보다는 여성작가의 친일소설 연구에 선구적인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는 데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 논의를 출발점으로 하여 선행연구의 미흡한 부분들을 보완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2) 위의 글, 84면.

작가가 그리는 여성인물과 친일서사가 남성작가의 그것과는 명확히 변별되는 지점<sup>3)</sup>이 있어야 할 것이다. 동일한 설정 속에 다른 내포의미를 갖고 있거나 독특한 양상이 나타난다면, 이러한 가설은 증명될 수 있다.

이에 대해 기존의 연구에서도 관심을 갖고 여성작가들의 친일소설을 연구했지만<sup>4)</sup>, 이를 완전히 증명하지는 못했다. 기본적으로 여성작가들의 친일문필 활동의 의의를 “사적인 관계망을 공적인 담론의 장에까지 확장해 간 성찰성 없는 행위”<sup>5)</sup>로 규정한 데다, 그들의 친일논리가 “대개 기존의 가부장제적이고 봉건적인 여성상에 기초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에 그쳤기 때문이다. 개인적 차원의 모성애를 국가적·사회적 차원의 것으로 확대시킨 총후부인상(像), 군국의 어머니상(像) 등의 표현이 이를 잘 설명한다. 그런 와중에 선행연구를 통해 내지와 조선의 이상적인 ‘여성상’에 불균등한 차이가 있었음이 드러나기도 했다. 전시체제하 일제가 일본여성에게는 자식을 낳고 기르는 모성을 강조한 반면, 조선여성에게는 모성

3) 이와 가장 유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연구가 김양선의 『日帝 末期 女性作家들의 親日談論 연구』(『어문연구』33-3,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5)다. 김양선은 이 글에서 “이들의 친일소설은 남성작가들의 그것과 내용이나 주제면에서는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형상화하는 방식은 다르다”(259)고 말한다. 그러나 도출된 결론은 “신여성/구여성, 아내/미혼여성, 욕망하는 여성 등 여성을 구성하는 여러 자질들을 소거한 채 여성성을 모성성으로 단일화하거나 전사형 여성으로 동질화하는 것은 전 국민을 총동원 체제에 맞게 소환했던 일본의 통치정책과 상동성을 지니는 것”(266)이라고 설명하면서 남성작가들의 친일담론과 특별한 변별점을 찾지 못한 채 마무리된다.

4) 이에 대한 시각을 공유하는 대표적인 연구자로 김복순을 들 수 있다. 김복순은 “기존의 연구에서와 달리 젠더 범주로 접근할 경우 달라지는 의미망이 분명히 있음을 확인하고자 한다.” 즉 친일과 젠더와의 연관성은 단순히 민족/반민족의 대립으로 환원되지 않는 잉여를 함유한다는 것이다. ‘젠더우선성’이라는 개념을 내세워 김복순은 최정희의 『2월 15일의 밤』을 “식민지 조선 남성의 ‘가부장성을 뒤집는 밤’으로 의미화하고, 『장미의 집』은 “여성에 의한 신여성 기획의 구조”로 읽어내며, 『야국초』는 “원초적 페미니스트 총동이 서린 일종의 원한 담론”으로 해석한다. 김복순은 이를 “친일로 환원되지 않는 균열지점”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논리적 정합성을 완전히 확보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대해서는 4장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하겠다.

김복순, 『“나는 여자다” 방법으로서의 젠더-최정희론』, 소명출판, 2012, 92-97면 참고.

5) 김양선, 위의 글, 259면.

보다는 노동력 동원의 역할을 강조했던 것이다. 가와 가모루(『총력전 아래의 조선 여성』, 『실천문학』, 2002), 가와모토 아야(『한국과 일본의 현모양처 사상 : 개화기로부터 1940년대 전반까지』, 『모성의 담론과 현실』, 나남출판, 1999) 등이 바라본 일본과 조선 여성에 대한 여성정책을 통해, 조선 여성에 대한 여성정책은 오히려 ‘모성 파괴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사실이 부각되기도 했다. 당시 신여성이 국민으로 호명되지 못하고 배제된 것 또한 중요한 사실로 드러났다. 주지하다시피 1930년대 초반부터 부르주아적 자유주의자로 분류되던 신여성들은 민족주의 운동이나 사회주의 운동 내에서 비난받았는데, 그 비난의 근거는 대체로 그녀들의 사치와 허영, 성적 방종에 있었다. 즉 훌륭한 어머니와 좋은 아내로 살기보다는 자신의 욕망에 충실하고자 했던 신여성들은 지배담론의 범주-민족주의 담론이든 제국주의 담론이든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sup>6)</sup> 이는 당시 장덕조에 의해 “여자가 훌륭하다 한들 얼마나 이 세상에서 대단해지겠어요? 가정을 잘 지키고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우는 것이 여성들에게 제일 소중한 임무인 것을 난 깨닫지 못했어요.”<sup>7)</sup>라는 여성 스스로가 내뱉는 뼈아픈 자책의 말로 나타나기도 했다.

2000년대 중반까지 이루어진 여성작가들의 친일소설 및 친일담론에 관한 연구에서 도출된 결론은 일제의 식민지배정책과 총동원체제가 여성들을 공적영역으로 소환 또는 호출하여, 그들에게 젠더해방의 환상을 심어 주었으나 그 실상은 “평등을 가장한 동원논리에 불과”<sup>8)</sup>했다는 사실이다. “여성해방에 대한 환상과 기대로 전쟁에 협력했다가 전쟁이 끝난 후에는 다시 배반을 당했다”<sup>9)</sup>는 표현은 이를 잘 드러낸다. 이는 곧 ‘여성해방’의

6) 심진경, 위의 글, 84-98면 참고.

7) 장덕조, 『行路』, 『반도작가단편집』, 조선도서출판, 1944.5.25 (장미경·김순전, 『여성 작가 소설에서 본 內鮮一體裝置 - 최정희 『幻の兵士』와 장덕조 『行路』를 중심으로』, 『日本語教育』51, 한국일본어교육학회, 2010, 186면에서 인용)

8) 김양선, 위의 글, 264면.

9) 김효준, 『식민지기 조선인 여성작가 최정희의 문학과 전쟁동원 - 여성성과 전쟁동원 논리 결

오랜 표어가 일제하에서 또다시 여성을 동일한 방식으로 재착취하면서도, 언뜻 진보적이고 혁신적인 의의를 가진 것으로써 그들을 유혹했음을 보여준다. 당시 적극적으로 친일(문필)활동을 한 모운숙, 최정희, 장덕조 등이 식민지배이데올로기에 진심으로 감화되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다만 이를 여성해방의 하나의 가능성으로 조심스럽게 접쳐보았던 것만은 확실한 듯 보인다. 1941년 12월 7일 경성 부민관에서 열린 여성들의 ‘시국 강연회’에서 모운숙이 했던 말, “지금은 여자나 아씨나 마님이나 兩班이나 常人이나 家門門閥 가릴 것 없이 모두가 大日本帝國의 平等한 國民이면 그만입니다. 家門에서 쫓겨나드라도 나라에서 쫓겨나지 않는 안해, 며느리가 됩시다. 戰爭에 나간 男子들을 대신하여 工場이 비었으면 工場으로 會社가 비었으면 會社로 드러가서 일합시다.”<sup>10)</sup>라는 말은 이를 잘 보여준다. 그렇다면 실제 이들의 주장과 욕망은 작품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

현재까지 발굴되고, 실제로 확인된 여성작가의 친일소설은 총 일곱 편으로 그 수가 많지 않다. 여성들의 친일문필활동이 강연회나 산문 등의 장르에 한정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소설에서는 단연 최정희의 몫이 크다.<sup>11)</sup>

장덕조	『行路』, 『반도작가단편집』, 조선도서출판, 1944.5.25.
최정희	『幻の兵士』, 『국민총력』, 1942.2.7.
	『二月十五日の夜』, 『녹기』, 1942.4.
	『黎明』, 『야담』, 1942.5.
	『薔薇의 집』, 『대동아』, 1942.7.

함양상을 중심으로, 『일본연구』32, 중앙대학교 일본연구소, 2012, 293면.

10) 『대동아』, 1942.5.

11) 여성작가의 친일소설과 친일담론에 대한 연구는 곧 ‘최정희’ 친일소설 및 친일담론에 대한 연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자칫 최정희(와 그의 친일담론 및 문학)를 당시 여성/친일담론에 대한 것으로 확대해석할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분명히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

	『野菊抄』, 『국민문학』, 1942.11.
	『정용열차』, 『半島の光』, 1945.2.

우리문단에서 다른 여성 작가들의 등장과 활약이 특정시기에 한정되었던 것과 달리 최정희 문학은 식민지 치하, 해방 공간의 격동기, 한국전쟁기, 4.19혁명 등을 모두 경험하고 반영한다. 기존 연구에서 ‘최정희(문학)의 정체성’에 대해 논할 때는 주로 ‘여성성’이라는 키워드가 부각되고, 연구 방식에 있어서도 페미니즘적 시각이 주류를 형성한다. 그의 ‘정치적 정체성’ 또한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주지하다시피 최정희는 일제 때는 일본 형사의 감시를 받은 인물이지만 해방 후에는 친일파로 분류되었고, 한국전쟁시 북측에서는 반동분자로 남측에서는 문학동맹의 빨갱이로 호명된 인물이기 때문이다. 이에 황수남은 “문학은 그의 생존 전략<sup>12)</sup>”이라 말하기도 했다. 최정희에 대한 기존연구는 그의 불행한 삶의 면면에 주목하여 작품과 생애를 동일시하는 양상을 보이며, 종종 그의 친일문학 및 문필활동의 내력을 소거한다. 황수남의 연구에서도 최정희의 친일작품은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볼 때 대상 텍스트로서 기능할 만한 요소가 없었기 때문일까. 그러나 검토결과 최정희의 친일소설에서 또한 그의 이전 소설들과 동일한 인물형, 페미니즘적 관점에서 중요하게 다룰만한 여성성의 표상들이 발견됨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이는 최정희의 문학 전반을 다루는 과정에서 연구자의 자의식이 그 시기 최정희의 문학을 거부하고 삭제한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친일’에 대해 본격적으로 언급하는 연구에서는 어떠한가. 김복순의 연구에서 최정희의 친일은 ‘오해’다. ‘민족 범주 우선성’이 아닌, ‘젠더 범주 우선성’으로 최정희의 작품을 읽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김복순은 최정희에 대해 “사이비 사회주의자로부터 시작하여, 기자 나부랭이,

12) 황수남, 『최정희 문학 연구』, 문예운동사, 2012, 114면.

첩, 친일분자, 북으로부터는 ‘인민의 피를 빨아먹는’ 작가, 남으로부터는 빨갱이, 정권의 부침에 따라 흘러 다녔던 작가, 시종일관 기회주의자 등등 최정희를 둘러싼 오해의 조각들은 여간 적지 않다”<sup>13)</sup>고 쓰면서. 친일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 사실 하나만으로 최정희를 온전히 규정할 수는 없다고 말한다. 김복순은 『제2 이등국민-여성』의 주변부성 극복으로서의 친일서사』라는 장에서 최정희의 친일문학에 대해 소략하게 다루며, 최정희의 친일소설을 ‘젠더 범주 우선성’으로 분석하면 식민지 조선(남성)의 가부장성과 허약성, 위선을 지적하며 식민주의와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을 드러내는 역설적 부분을 확보하게 된다고 말한다. 이는 최정희의 친일서사가 가부장적 현실, 남성중심적 현실에 대한 거부, 비판, 복수의 의미를 강하게 노출함으로써 식민주의 또는 가부장제에 대한 저항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다음의 서술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최정희는 여성으로 태어난 것을 ‘무한히 다행하게 재미나게 여기노라’ 말한다. ‘남자는 싱겁디 싱거운 뿐 아니라 변변치 못한 존재가 아닌가고 반문하면서, 여자는 남자에게 산다는 보람을 느끼게 하는 존재이며, ‘늑음과 같은’ 충만한 존재라고 하였다. (중략) 여자된 자랑 속에서, 여자임을 만끽하며, 여성성을 한껏 고양시키며 문단으로부터도 인정받으며 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 작가 최정희다.<sup>14)</sup>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현재까지 발굴 소개된 최정희 친일소설 전부를 대상으로 한 상세한 텍스트 분석을 통해 인물 형상화의 특징, 서사적 특수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현재까지 최정희 친일소설 분석이 전체 작품을 모두 대상으로 하고 있지 못한 한

13) 김복순, 위의 책, 8면.

14) 위의 책, 62면.

계, 페미니즘의 관점에서만 의미화 되면서 ‘친일’부분이 소략하게 다루어 지거나, ‘친일’부분에 치중하여 ‘여성해방’의 진짜 의미를 손쉽게 지나치곤 했던 연구사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서사와 인물 유형 분석을 통한 텍스트의 ‘친일적 성격’을, 3장에서는 실제와 소설에서 묘사된 식민지 ‘여성/작가’의 현실 대비를, 4장에서는 텍스트의 ‘여성해방의 의의’를 자세히 규명하여 최정희 ‘친일문학’<sup>15)</sup>만의 특수성을 밝혀낼 것이다.

## 2. 소설 분석을 통해 본 ‘여성-형상화’ 방식의 특징

앞서 정리한 바와 같이, 여성작가들의 친일소설 연구에서 신체제하에 여성인물이 동원되는 양상은 ‘여성적’, ‘가정적’이라는 수식어로 설명되며, 가정주부의 역할을 확대한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었다. 특히 최정희는

15) 기본적으로 우리문학사에서 친일문학은 “주체적 조건을 상실한 맹목적 사대주의적인 일본에 찬과 추동을 내용으로 하는”(임종국, 『친일문학론』, 평화출판사, 1977, 15면) 반민족적인 문학 을 뜻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문학의 외부적 요인에 지나치게 주목하여 친일문학 내부에 있는 피식민자의 욕망과 문학적 개성을 간과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또한 민족주의 적 시각을 바탕으로 친일문학을 바라봄으로써 논의를 단순화시키고, 이를 문학적 대상으로 다루기보다는 정치적·역사적 차원에서 의미화 하는 한계를 보였다. 일제말기의 친일문학은 당시 조선에 유입된 일제의 식민지배이데올로기와 총독부의 예술정책에 대해 문단 차원의 협력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이다. 그러나 작품 활동은 작가 개인의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친일문인들은 문학작품 창작을 위해 자신만의 친일논리와 문학론을 고안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기존에 그들이 갖고 있던 사상적 배경과 예술론이 큰 영향을 미쳤다. 식민지 시대 문인들이 보이는 왜곡과 굴절의 내적 동력을 밝히는 것이 주요한 방법론이 된 현재의 연구 풍토에서 친일문학은 “강력한 제국/제국주의의 헤게모니 아래서 ‘식민지 근대’를 살아온 지식인 작가들의 역사철학적 인식이 가 닿은 하나의 필연적 귀결”(김명인, 『친일문학 재론-두 개의 강박을 넘어서』, 『한국근대문학연구』, 한국근대문학회, 2008, 258면)로 의미화되며, 친일문학의 내부에는 식민지 지식인의 혼돈과 착종이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일제하 친일문인들의 서술전략과 차이점 등에 주목한 박사학위논문의 연장선에서 쓰였다.



“여성 고유의 영역과 자질을 온전히 유지하면서 일본의 지배 논리를 내면화하는 과정을 섬세하게 그리고 있다”<sup>16)</sup>는 평을 받았다. 그렇다면 이는 남성작가들의 친일소설에서 형상화되는 여성인물과 본질적으로 변별된다고 볼 수 있을까. 이 장에서는 인물, ‘여성-형상화’ 방식에 주목하여 최정희 친일문학작품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 1) 부드러운, 그러나 확실한 어조로 말하는 대동아공영권 - 「환의 병사」(1942)

최정희의 첫 번째 친일소설인 「환의 병사」를 보면, 인물 설정이 매우 섬세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간 친일문학 연구에서 이러한 목적문학은 그 특성상 사상적 메시지가 강화되면서 문학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왔는데, 최정희의 이 소설은 바로 그 점이 충족되는 텍스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소설의 시대적 배경은 ‘러일전쟁’기로, 조선인 여인 영순과 일본인 군인들의 우정과 사랑에 대해 다룬다. 내선연에서사는 그 자체로 전혀 특별할 것이 못 되지만, 최정희의 소설에서는 기존 남성 작가들의 내선연에서사와는 변별되는 지점을 찾을 수 있다. 첫째로, 전쟁의 대의만을 목적으로 하는 남성작가들의 ‘군인’ 형상과 차이가 있다. 이 소설의 남자주인공 아마모토(山本)는 여주인공인 영순과의 첫 만남에서 “병사는 전쟁하는 일에 열중합니다. 어떻게 조국을 훌륭히 지켜갈까, 오직 그것만 생각하는 것이 병사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연의 신비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신비를 모르는 사람에게 동경이 있을 리 없습니다. 동경이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낭만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 현대의 낭만은 힘이고 열정이고 진실이고 생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sup>17)</sup>라고 말한다. 문학을 하고 싶었다는 이 남자주인공은 피와 폭력

16) 김양선, 위의 글, 267면.

17) 최정희, 「환의 병사(幻の兵士)」, 『국민총력』, 1941.2.(이경훈 편역, 『한국 근대 일본어 소설선

으로 점철되는 전쟁의 목적과 의미를 스스로 찾아 내면화해야 한다. “(총 소리가 들릴 때마다) 적이 죽는 것일까 하고 생각하면, 그때는 조금 쓸쓸한 느낌도”(91) 들지만 그는 결국은 이 전쟁을 ‘성스러운 의무’로 의미화한다. 전쟁의 목적에 대해 고민하고, 갈등하다 그 나름의 정신적 의미를 내면화하는 인물의 등장은 남성작가들의 소설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이다. 아마모토 뿐 아니라, 이 소설에는 미술학교에 가지 못한 것이 분하다고 말하는 시미즈(清水)나 가와이(川井)등 다른 일본군도 등장하는데 이들은 영순에게 아리랑을 청해 배우고, 조선의 언문을 알려달라고 한다. “(조선의) 글자들의 모양은 조선 가옥의 구조와 많이 닮지 않았습니까”(89)라고 말하는 이 섬세한 군인-남성-인물형은 매우 독특한 인상을 준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물형의 설정은 일본군의 ‘인간미’를 최대한 강조하여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편지글의 형태로 친일소설을 구성했다는 점 또한 독특하다. 『환의 병사』는 조선인 여성 영순과 일본군 아마모토가 주고받는 편지의 내용이 가장 핵심적인 주제의식을 담고 있는데, 이때 최정희는 두 인물간의 애정 어린 문장들 사이에 소설의 메시지를 담아 일반적으로 서술자가 직접 계몽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친일소설의 심리적 거부감을 상쇄시키는 효과를 거둔다. 아마모토의 편지에서 핵심적인 메시지는 “아무쪼록 당신도 저와 같은 이념을 가져 주십시오, 그리고 신의 뜻인 동양평화를 위해 강한 여성이 되어주세요.”(91~92)라는 문장이며, 영순의 편지에서 핵심적인 메시지는 “제가 써 드린 언문으로부터 당신이 조선 전체와 지나까지, 즉 동양 전체를 느끼게 된 것과 똑같이, 당신과 만난 덕분에 저도 전쟁이 자기 일처럼 생각되고 어딘가에서 병사를 만나던 당신을 만난 듯이 기뻐합니다.”(92)라는 문장에 담겨 있다. 조선의 언문을 통해 ‘일본-조선-중국’의 연결지점을 발견하고, 일제의 식민지배정책을 마음 깊이 수용하는 영

1940-1944』, 역락, 2007, 85면에서 인용) 이후 인용시 본문 내에 괄호로 인용면을 표기하겠다.

순을 통해 내선연애의 감정이 이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결정적으로 그를 추모하던 영순 앞에 이 소설의 제목처럼 환영(玄影)으로 나타난 아마모토는 “지나 가옥도 조선 가옥도 같은 구조로 되어 있음을 보면, 일본과 조선과 지나는 선대로부터 연결이 있는 것이”(93)라고 “부드러운, 그러나 확실한 어조로”(94) 말하며, ‘대동아공영권’의 메시지를 분명히 한다.

## 2) 애국반 일원으로 꿈꾸는 여성의 사회진출 - 「2월 15일의 밤」, 「장미의 집」(1942)

「2월 15일의 밤」은 매우 짧은 소품이다. 동네 애국반에서 하는 일들이 어쩔지 체계가 없는 듯 느껴 본인이 직접 애국반장을 해보고자 하는 여성 인물 ‘선주’가 가부장적인 태도와 입장에서 이를 반대하는 남편 ‘남준’을 설득하는 내용을 담았다. 선주는 애국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 일의 성격과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하는 것이 불만스럽다. 저금을 왜 해야 하고, 국방헌금을 내야하는지, 국채를 왜 사야하는지, 쇠를 왜 나라에 바쳐야하는지 등에 대해 아무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대부분의 애국반원들은 전쟁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한다. 당시 조선(인)의 실상이 이러했을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며 애국반장 일을 해보려는 선주가 ‘여자는 가정일을 해야 한다’는 남편 남준과 갈등을 겪던 그때 라디오에서 일본군에 의한 싱가포르 함락 소식이 전해진다. 기분이 좋아진 남준은 결국 선주의 애국반장 일을 허락한다.

같은 해 7월 발표된 「장미의 집」은 「2월 15일의 밤」이 좀 더 구체화된 소설로, 결혼한 이래 단 한 번도 의견충돌이 없었던 부부가 ‘성례가 애국반장이 된 일’ 때문에 최초의 갈등을 겪는 이야기로 시작된다. 여기서 남편 영세가 아내 성례의 애국반 활동을 방해·반대하는 논리 또한 「2월 15

일의 밤』과 동일하다. 마땅히 가정을 지켜야 할 여성이, 사회적인 활동을 하는 것은 ‘여성스럽지 못한 일’이기 때문이다. 성례가 애국반장 일을 하고자 하는 이유 또한 선주와 동일하다. 다만 이 소설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전시하 긍정적인 여성모델’로서 성례가 전시된다. 식모를 내보내고 집안일을 손수 하며, 구공탄을 피우고, 전기를 아끼기 위해 방은 하나만 사용하는 알뜰한 가정주부의 모습이 바로 그것이다. “거저 제 힘 자라는 대루 그분들(이 동네의 여성들)의 진정한 동무가 되보려고합니다”<sup>18)</sup>라는 성례의 다짐은 가정의 범위를 넘어, 전시하 총동원체제에 기여하는 한 사회인이 되고자 하는 여성들의 욕망을 엿볼 수 있게 한다.<sup>19)</sup>

### 3) 反서양의 정서와 동양중심 가치에 대한 역설(力說) - 「여명」

「여명」은 종로 전차정류장에서 우연히 이루어진 은영과 혜봉의 재회에서 시작된다. “여학교시절에 동성연애를 한다는 말을 동무들한테 드르리 만큼 그들은 서로 떨어지지않았”<sup>20)</sup>던 절친한 사이였던 두 사람은 은영이 동경 여자전문학교에 입학하고 혜봉은 고향으로 가게 되면서 멀어졌다. 10년 만에 만난 두 사람은 지나온 세월을 묻고 동창들의 안부를 확인한다. 그러던 중 혜봉은 은영을 통해 동창인 경자가 얼마 전 부민관에서 “나라를 위해서 아들을 받치자”(79)는 취지의 연설을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은영은 혜봉이 경자의 연설소식에 별다른 감흥이 없어보이자, 몽매한 여자들을 보고 가만있을 수는 없다, 먼저 깨달은 사람들이 타이르고 끌고 가야한다며 목소리를 높인다. 이때 은영이 비판하는 대상은 무지한 ‘조선-여성’뿐만은 아니다.

18) 최정희, 『장미의 집』, 『대동아』, 1942.7, 154면.

19) 이러한 측면에 대해서는 4장에서 보다 본격적으로 의미화 하여 서술하겠다.

20) 최정희, 『黎明』, 『야담』, 1942.5, 76면.

이후 인용시 각주를 달지 않고, 본문 내에 괄호로 인용문을 표기하겠다.

“(……) 그게 그들의 마술(魔術)이라는거다. 왼손엔十字架, 바른손엔 칼을 잡았구, 성서와 아편을 한품에 품구서 (……) 속히구, 유린을하구, 강탈을 했는데, 우리는 그들이 부리는 요술, 마술에, 걸려서 그것을 몰랐 단말이야(……)”(80)

은영의 이 발언은 일본(동양)을 중심으로 세계를 재편하고자 하는 일제의 식민지배정책이 고스란히 반영된 것이다. 이 문장을 통해, 이 소설이 계몽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서양을 통해 받아들인 종교와 가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조선(인)’임을 알 수 있게 된다. 성서와 아편을 한품에 품었다는 이 표현은 동시기 ‘아편전쟁’이라는 동양의 외상(外傷)을 통해 반서구주의를 정당화하던 김동인의 소설 『아부용』(1942)과 『남경조약』(1943)을 떠올리게 한다. 1940년대에 아편전쟁을 제재로 한 소설을 통해 서구열강에 의해 파괴된 중국의 역사를 강조하여 반서구의 정서를 조장하고, 서구에 대항하기 위한 대동아공영권 구상과 대아시아 개념을 주창한 것은 1940년대 우리 친일소설의 한 경향이었던 때문이다.<sup>21)</sup> 두 인물의 대화는 곧 철저하게 일제에 의해 교육된 아이들의 일화를 통해, 각자의 부족한 점을 각성하는 내용으로 이어진다. “아이들은 이렇게 철저하구나, 조금두 빈자리가없이 꼭 들어찼구나, 난 이 아이들의 빈자리가없이 **꼭찬 마음을 이 완전무결한 마음을** 어디까지든지 조장시켜줄려는 생각이야”(82) 이런 다짐이 새삼스럽게 필요한 이유는, ‘은영-혜봉 세대’와 ‘자식 세대’가 받은 교육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두 인물의 대화 중 “난 작구만 그 서양여자가 전에 우리학교교장같구, 영어선생 미췌쓰·원같아서”(81)라는 말을 통해 은영과 혜봉이 미션스쿨을 다녔음을 유추할 수 있다. 서양인들로부터 신식교육을 받았던 그녀들은 서양(인)을 적대시해야 하는 갑작스러운 세계의 변화에 채 적응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아이들의 미

21) 이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줄고(『일제말기 친일문학의 내적논리와 회고의 전략 - 이광수, 김동인, 채만식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를 참고할 것.

래를 위해서 그들(서양)에 대한 고마운 감정을 철저한 일본식 세계관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정월 초하루, 은영의 초대로 혜봉과 경자는 아이들을 데리고 은영의 집에 모인다. 아이들은 전장의 병사들에게 위문편지를 쓰고, 전쟁놀이를 한다. 이때, 목검을 들고 싸우던 아이들이 분에 차서 하는 말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양코백이가 지나가 분해서 우는거야(……) 그러니까 홍콩, 마—래, 다 뺏겼지. 우리닛뽕은 당하지못해, 양코백이 키나크쿠 코나컷지, 별수있나. (……) 이자식 인제 우리가 닛뽕이되구 해봐……당장 죽여 버릴테니.”

“싫어 난 양코백인 안돼, 저이들 미까다두 모리구 막 쏘는 그런 자식들 누가 돼……덴노헤이가 반자이! 반자이! 반자이!”(85)

아이들의 세계에서 보다 뚜렷하게 ‘선악’의 구분이 드러나는 지점이다. 전쟁놀이 중 아이들은 악역(惡役)의 ‘미군’ 역할을 거부하고, 선역(善役)인 ‘일본군’을 지망한다. 세 조선인 엄마는 일본군을 꿈꾸는 아이들을 만족스럽게 바라보며 소설은 끝이 난다. 일본의 가치관을 빠르게 수용하고 내면화하는 아이들의 모습과 ‘군국의 어머니’가 되어 이를 뒷받침하고자 의지를 다지는 여성인물들의 정월초하루 풍경이 묘사된 『여명』은 다가오는 새해에 아이들의 미래가 ‘일본인으로서 더욱 빛날 것’이라는 기대감을 담았다.

#### 4) 지원병제도 홍보와 훌륭한 일본군 만들기 - 「야국초」(1942)

『야국초』는 처음부터 끝까지 편지글로 이루어져 있다. 최정희의 친일 소설 가운데 가장 긴 분량을 가지고 있는 이 소설은 아들 승일을 데리고 ‘지원병 훈련소’로 가는 한 여인의 회한서린 문장으로 시작된다. 남자와

헤어진 지 12년이 지난 시점, 그 사이 단 한 번도 편지를 한 적 없었던 여자는 오늘 처음으로 그에게 그간의 이야기를 담은 편지를 쓴다. 오늘이 기념할만한 특별한 날이라는 의미다. 이 소설의 대표적인 정서는 떠나간 남자에 대한 원망이다. 남자는 처자식이 있는 유부남이었고, ‘나는 그 사실 때문에 처음에 남자를 밀어냈지만 그의 꾸준한 설득과 구애로 사랑하는 사이가 됐다. 그러나 “그럴 정도로 자신의 지위나 명예에 마음을 쓰실 양이면, 당신은 어째서 좀더 빨리 제게서 떠나지 않으셨나요?”<sup>22)</sup>라는 말을 통해 이내 남자로부터 버림받았음을 알 수 있게 된다.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고 남자는 “어째서 주의하지 않았지?”(174)라는 말로 여자를 책망하였고, “당신이라면 그렇게 무리한 일도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175)라는 말로 낙태를 권한다. 이때 남자의 비정함에 대한 묘사는 “인정미 없는 무서운 말썽”(175), “도자기처럼 싸늘한 당신”(175)이라는 표현에서 잘 드러난다. ‘나는 혼자 아들을 낳아 “이 세상의 모든 것에 이기기”를”(176) 바라는 마음을 담아 그 이름을 승일(勝一)로 짓는다. 그리고 승일을 남자와는 완전히 다른 존재, ‘진정한 인간’으로 키우기로 결심한다.

그렇다면 아들을 ‘진정한 인간’으로 키우는 길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일본의 군인으로 키우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소설은 열한 살 밖에 되지 않은 아들 승일을 데리고 ‘나’가 지원병 훈련소에 가는 이유에 대해 설명한다. ‘나는 아들을 위해 지원병 훈련소의 교관에게 견학을 부탁했던 것이다. 이 대목에 이르러 ‘나는 “훌륭한 제국국인(帝國軍人)을 만들려고 하는 자”(179)로, 승일은 “훌륭한 군인이 되려고 하는 승일”(179)로 의미화된다. 일본군의 생활을 알 길 없는 조선인 모자(母子)는 그들이 어떤 일을 하고, 밥은 어떻게 먹고, 정리정돈은 어떻게 하는지<sup>23)</sup> 등의 자세한 일

22) 최정희, 『야국초(野菊抄)』, 『국민문학』, 1942.11.(김병걸·김규동 편, 『친일문학작품선집2』, 실천문화사, 1986, 173면에서 인용) 이후 인용시 본문 내에 괄호로 인용면을 표기하겠다.

23) 소설 전반에서 이들은 ‘강철같이 늠름한 모습으로 묘사된다. 식사는 밥이나 반찬의 분량이 적어보이지만, 훈령병의 연령과 체질을 연구해 배정된 영양물이고 식사예법도 훌륭하다. 완

상을 관찰하여 장래 일본의 군인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인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 대목에서 교관 하라다(原田)의 말을 통해, 당시 조선인의 일본군화(化)에 가장 큰 장애가 되었던 ‘지극히 조선적인 문제’가 거론된다.

저희들이 오년간 이 지원병 훈련에 힘쓰고 있는 동안에 가장 강하게 느꼈던 건, 반도의 모친들이 빨리 작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매년 지원병이 입소하면, 곧 그 가정의 사정이라든지 부모 형제의 찬부 등을 조사합니다만, 언제나 모친 쪽의 반대가 많습니다. (……) 아무래도 무지한 모친이란 눈 앞의 맹목적인 애정만 알지, 크고 빛나는 미래 같은 건 조금도 의식하지 못해서 결국 이런 식의 모친은 자기 자식을 자기 손으로 죽이는 겁니다. 이것과 반대로 어머니의 의식이 확고한 자는 성적도 굉장히 좋고, 입영하고 나서도 상관으로부터 칭찬받습니다. 어머니의 감화라는 건 위대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180)

이는 최정희가 소설의 문제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일제말기 친일소설을 활발하게 창작하고 친일담론을 생산해내던 남성 작가들의 글에서도 공통되게 등장한 ‘사실’이다. 당시 조선에 지원병 제도 실시 이후 일본이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조선의 어머니들을 설득하는 일이었다. 대동아공영의 거대담론이나 아시아의 승리 같은 표어에 앞서서 것이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이었고, 유교적 관습이 남아 모친의 말씀을 거역하기 어려운 아들과의 관계성 등으로 인해 일제가 실제 조선인 청년을 지원병으로 포섭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애초에

---

벽한 정리정돈과 청소도 빠지지 않는 일본(군)에 대한 긍정적 묘사다. “너무 맛있는 건 먹지 않습니다. 군대에서는 먹으려고 하지 말 것, 자려고 하지 말 것, 나 있지 않은 길을 갈 것, 먹지 않고, 자지 않고, 그리고 길이 생겨있지 않은 댕 걸으려니 괴롭습니다. 그러나 이 괴로운 일을 해내는 데에 일본군인의 생명이 있는 겁니다. 군인정신이 깃들어 있는 겁니다.”라는 하라다 교관의 말을 통해 일본군의 ‘절제’와 ‘인내’의 자세가 강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일본에 대한 충성심이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조선인 어머니들의 걱정어린 편지에 마음이 약해져 탈영을 하는 조선인 청년의 수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니까 ‘군국의 어머니’담론은 바로 이러한 일본군 입대에 대한 조선인 어머니들의 심리적 거부감을 감소시키고, 이들에 대한 정신교육을 통해 더 많은 조선인 청년들을 일본의 군대에 편입시키려는 일제의 식민지배정책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야국초』에는 “엄마! 내가 전쟁에 나가서 싸우다 죽어도 엄만 이제 울지 않겠지?”(183)라는 질문으로 ‘어머니의 자세’를 재차 확인하는 어린 아들의 모습이 강조되어 나타난다. 몇 년 전 그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하지 못해 어린 아들을 ‘실망’시켰던 ‘나’는 이제 ‘군국의 어머니’가 되기로 결심한다.

##### 5) 근로정신의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 - 「징용열차」(1945)

실천문학에 의해 2004년 새롭게 발굴된 최정희의 친일소설 「징용열차」는 그의 친일소설 가운데 시기적으로 가장 후반인 1945년 2월에 발표된 것이다. 최정희의 다른 친일소설들의 발표시기가 1942년에 집중되어 있는 것과 달리 해방을 반년 앞두고 발표된 이 소설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남성인물을 주인공으로 하고 있다. 1942년과 1945년 사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조선에 징병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는 데 있다. 그래서 1942년 소설에 지원병 훈련소를 방문하는 소년이 등장했다면, 이 소설의 주인공 ‘병태’는 얼마 전 징용영장을 받고, 소집에 응한 것으로 묘사된다. 그러나 그는 여느 친일소설의 ‘일본군대의 일원이 된 조선인’과 달리 두고 온 아내와 뱃속의 아기를 떠올리며 두려움과 슬픔으로 마음이 어지럽다. 이때 특히 그를 불안하게 하는 것은 자신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전혀 알지 못한다는 데서 기인한다. 그러나 곧 이러한 병태의 감정을 일시에 해소시켜주는 사람들이 열차 내에 등장한다. 바로 ‘국민동원총진회

(國民動員總進會)의 사람들이다. 국민총력조선연맹에 소속으로 1944년 부유층 유지들이 중심이 되어 결성한 이 단체는, 근로정신을 계몽하여 태평양전쟁에 협력한다는 목적으로 발족된 단체<sup>24</sup>)로 전쟁의 의의를 선전하고 근로동원을 권장하는 강연을 주된 활동으로 했다. 소설에서는 국방복을 입은 남자와 몸빼를 입은 여자 둘이 들어와 연설을 한다. 이때 특징적인 것은 이들의 인적 구성<sup>25</sup>)과 연설 내용은 매우 전략적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다.

(1) “저도 오빠가 지난 사월에 학병(學兵)으로 나가고, 남편이 지난 오월에 남방의 기술자로 부르심을 받아 가고, 또 며칠 전에 동생이 징용장을 받고 여러분과 똑같이 이렇게 남쪽을 향해 달리는 차를 타고 갔습니다. (……) 나 한 개인의 슬픔을 견디기 어렵다고 남편을 안 보내고, 오빠를 안 보내고, 동생을 안 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sup>26</sup>)

(2) 이 사람은 다른 말은 하나도 안 하고, 자기가 아메리카에 가 있을 때, 동양 사람이라고 해서, 얼굴 누런 황인종이라고 해서 천대받은 이야기만 쏟아놓았다.(222)

(3) “(태평양과 대서양을 합류시킨 파나마 운하의 건설에 놀랐다는 이야기를 하며) 여러분과 똑같은 남자였습니다. (……) 나는 그때부터 남자를 존경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과연 남자의 힘은 위대한 것이라고 탄복했습니다. 남자의 힘으로 못할 것이 없다고 믿어졌습니다.”(224)

24)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일제협력단체사건-국내중앙편』, 민족문제연구소, 2004, 407~408면 참고.

25) 특히 여성 연설자들에 주목해 이 소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집안의 남성들을 모두 전쟁에 보내고 후방을 지원하는 젊은 여성, 신여성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늘 남성들에 대결감정을 갖고 있었지만 전쟁이 일어나자 ‘남성성’의 위대함을 깨달았다는 나이든 여성, 이들 여성인물을 연설자로 등장시킴으로써 최정희는 적어도 『징용열차』에서 여성/젠더해방의 가치보다도 텍스트의 ‘친일’의 성격을 더 분명히 하고자 했다.

26) 최정희, 『징용열차』, 『半島の光』, 1945.2.(실천문학, 『기획]발굴-최정희의 친일문학작품』, 실천문학사, 2004, 220면에서 인용) 이후 인용시 본문 내에 괄호로 인용면을 표기하겠다.

인용문 (1)의 연설자는 어느 여학교의 국어선생이라는 ‘기무라 요시코’다. 그녀의 발언을 통해 병태는 “나같은 자야 겨우 언문이나 깨친놈”(221)인데 대학교까지 나왔을 저런 훌륭한 사람들과 함께 국가의 부름을 받았구나 라고 생각하며 이것은 매우 장한 일이라는 생각의 전환을 겪게 된다. 모두가 동등한 존재가 된다는 사실이 그를 감화시켰으며 그는 이 연설을 통해 ‘위로’와 ‘안도’를 느낀다. 반면 어느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라고 소개한 (2)의 발언을 통해서서 ‘긴장’과 ‘분노’를 느낀다. 서양인에 의한 동양인의 차별경험을 세세하게 설명한 나이든 교장의 말에 조선인 남성들은 격분한다. 그리고 “때려부습시다. 힘껏 해보십시다.”(223)는 다짐의 말들로 열차 안을 가득 채운다. 어느 학교의 여성교장인 (3)의 연설자는 자신이 원래 신여성으로서, 남성의 힘을 대단치 않게 생각해왔음을 고백하면서 그러나 지금은 앞에 앉은 어린 소년에게도 머리를 숙일 준비가 되어 있다며 이들의 ‘남성성’을 추켜올린다. ‘자신감’을 심어주려는 것이다.

결국 병태는 이들의 연설을 통해, 그동안에 느낀 불안이나 막연한 우울감을 완전히 떨쳐내고 “집을 떠날 때의 자기와 현재의 자기가 엄청나게 달라진 것”(225)을 느낀다. 이때 최정희는 소설의 마지막 문장에서 “이러는 사이에 기차는 위대한 힘을 가진 **동양의 주인이 될 그들**을 싣고, 남으로 남으로 달리고 있었다.”(226)는 서술로 친일소설의 성격을 더욱 분명히 한다.

### 3. 일제하 총동원체제가 ‘여성/작가’를 ‘실제’로 소비한 방식

여성작가의 친일문학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는, 일제하에서 언뜻 국가가 요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떳떳한 국민인 것처럼 보였던 여성은 실제로는 여전히 가부장제적인 성별 역할에 갇힌 의존적인 존재에 불과했다

고 말하고 있다. ‘여성의 국민화’ 자체가 남성성의 용어로 정리되었고, 여성의 역할이 가정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sup>27)</sup> 그러나 이는 ‘문학’에서 형상화된 여성에 대해서만 주목했으며, 또한 그 문학작품이 몇몇 작가의 작품에 한정되었기 때문에 일제의 식민지배정책이 여성을 대한 방식을 대변하지는 못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일제하 총동원체제 속에서 ‘조선-여성’이 실제로 동원·소비된 방식은 어떠했을까.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일제말기 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에 나타난 전 시체제가 조선의 사회상과 여성동원 측면에 대해 신문기사를 중심으로 검토해보았다.<sup>28)</sup> 1943년 10월 10일 석간 2면에는 “8일 총독부에서 발표한 생산증강 노무강화 대책요강 중에는 여자의 노무를 적극적으로 통제 동원한다는 조목”<sup>29)</sup>이 등장한다. 기사의 요지는 징병검사를 앞두고 조선인 남성에게 대한 호적정비는 어느정도 이루어졌으나, 여성에 대한 호적기류정비가 소홀했음을 지적하며 여성의 전선배치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성에 대한 호적정비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1944년 11월에 이르면, 결전하에 전력증강의 근원이 되는 근로동원을 철저히 하고자 노무조정령과 국민근로보국협력령 두 가지 칙령이 일부 개정되어 조선에서도 25일부터

27) 심진경, 위의 글, 93면 참고.

28) 일제말 조선의 사회상을 엿보기 위한 매체로 『매일신보』를 활용하는 이유는, 당대의 사회상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신문매체가 사실상 부재하고, 『매일신보』가 이러한 일제의 정책을 홍보하는 매체로 기능한 ‘총독부 기관지’이기 때문이다. 1940년을 기점으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강제 폐간되었다. 본디 두 신문은 조선의 ‘민족지’로 상징성 있는 매체였다. 그러나 193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총독부 정책에 대한 비판적 기사는 감소했으며, 이러한 경향은 ‘일장기 말소사건’을 계기로 두드러졌다. 일제말기 언론통제의 목적은 ‘조선인의 민족정신을 일깨울만한 매체와 내용에 대한 제제를 통해 조선인을 온전히 황국신민화하기 위함’이었다. 일제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견제하기 위해 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에 막대한 투자를 했다.

최유리, 『日帝 末期(1938~45年) ‘內鮮一體論과 戰時動員體制’,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23-26면 참고.

29) 『婦女子 戶籍도 整備, 勞務強化運營에 萬全』, 『매일신보』, 1943.10.10.

실시하기로 했다는 기사<sup>30)</sup>가 보인다. 이때 동원대상의 연령이 종래 12세 이상 40세 미만의 남성에서 60세 미만의 남성까지로 크게 확대되고, ‘국민근로보국협력령’의 내용을 보면 보국대의 여성은 종래 14세 이상 25세 미만의 배우자 없는 여성에 한하였던 것을 40세까지로 확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른바 전방위적인 동원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때 조선 여성들은 주로 ‘애국반’ 체제 하에서 “도시에서는 방공호의 공동작업, 시가지와 하수구의 청소작업, 각 부락에서는 농촌생산력 확충<sup>31)</sup>에 동원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비슷한 성격의 동원 사업으로는 미성년 여자를 모아 애국여자단을 결성한 ‘여자 청년단’이 있었다.

두 번째로 꾸준히 등장하는 여성동원 사업은 ‘결혼 알선’이다. “남자 이민부대<sup>32)</sup>, “대륙의 새악씨<sup>33)</sup> 등 신부후보자 구하기가 그것이다. 당시 이른바 ‘흙의 용사’라고 불렸던 조선인 개척군인들을 위해 조선인 신부를 모아, 적극적으로 이민을 알선했던 것이다. 1938년과 1940년 기사에 북만주를 개척하는 북만 집단 이민청년들에게 총독부 척무과와 이주협회가 나서 신부를 주선하였다는 기사가 여러건 실렸고, 이때 개척민 결혼문제는 “아들 딸을 낳아 장차 개척사업을 성취시킬 제2세를 생산하는 근본문제<sup>34)</sup>로 중요하게 취급되었다. 그러나 지원자의 수가 그리 많지 않았는지, 만주 이주를 꺼려하는 ‘조선인 여성’을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내지 여성’과 비교하는 논조의 기사들이 자주 실렸다. 특히 개척민과 결혼을 꺼려하는 조선인 여성들의 ‘천박하고 고루한 생각’<sup>35)</sup>때문에 심각한 결혼난이 생겼다고 비판하는 경우도 있었다.

30) 『男女勤勞 年齡擴大, 勞務調整令, 報國協力令 朝鮮도 改正』, 『매일신보』, 1944.11.25.

31) 『十四歲以上 四十歲까지, 四百萬名을 總動員, 國民皆勞運動의 要綱을 決定』, 『매일신보』, 1941.9.3.

32) 『滿洲開拓總角軍 爲해 ‘處女移民’을 計劃, 慶北道서 率先實行』, 『매일신보』, 1938.8.28.

33) 『大陸의 新婦를 求한다, 滿洲의 開拓總角들이 求婚』, 『매일신보』, 1940.11.23.

34) 『開拓戰士의 伴侶, 申請者는 總督府에서 斡旋』, 『매일신보』, 1942.4.8.

35) 『나오라 大陸의 新婦, 六對一의 深刻한 結婚難』, 『매일신보』, 1942.7.23.

세 번째는 ‘여자 군속’으로, 군무(軍務)에 동원되는 경우다. 1944년 이후 주로 비행기 증산에 전력했음이 확인된다.

분산된 비행기의 날개에 못을 박기도 하고 발동기를 소제하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만력(萬力)을 돌리기도 하고 쇠망치를 휘두르며 ‘뿌리커’의 시보리 작업을 하고도 있다. 검정 몸뻐에 ‘치카다비’를 신고 머리를 흰 수건으로 질끈 동여매고 말없이 손만 놀리고 있는 그들의 표정이 거룩하고도 엄숙해 보인다.<sup>36)</sup>

마지막으로 “전장에 피는 순정의 백합꽃”<sup>37)</sup>이라 칭하는 ‘간호부’를 들 수 있다. 지원병제도가 실시된 1938년부터 지원간호부 제도도 함께 실시되었으며, 내지의 여성들만 지원가능했던 것이 1939년 ‘고등여학교 출신’ 조선인 여성에 한하여 허가되었다. 그러나 실제 참여인원의 수는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1942년 2월 1일자 기사를 보면, “마감 날까지 지망하여 온 수가 갑종에 33명, 을종에 68명 도합 101명인데 그 중 조선여자가 갑종에 6명, 을종에 8명이어서 합쳐서 14명이 응모하여 왔다.”<sup>38)</sup>라는 대목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기사는 매우 감격적인 기조로 “조선여자가 14명이나 지망하여 온 것은 총후조선여성들이 시국을 잘 파악하고 이에 정신하려는 것으로 1천 2백만 조선여성의 기염을 올린 것”으로 의미화 되기도 한다.

이렇듯 당시 조선에서의 여성동원 정책과 진행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일제말’이란 시기는, 조선여성이 일본의 전쟁에 실질적으로 다수 동원된 시기라기보다는 이를 위해 전방위적인 홍보에 집중하던 시기였음을 알 수 있다. 당시의 친일문학 또한 일제의 식민지배정책을 뒷받침하고 홍보하기

36) 『鵬翼과 熱闘의 處女들 ○○航空隊 訪問記』, 『매일신보』, 1944.9.21.

37) 『戰場의 白百合, 白衣의 天使, 訓練 쌓는 從軍看護婦』, 『매일신보』, 1941.3.23.

38) 『征野에 感激의 天使, 第一線의 救護看護婦로 半島人 十四名 出願』, 『매일신보』, 1942.2.1.

위한 목적이 강했으며, 남성-여성 작가를 막론하고 실질적인 경험에 기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제말 친일문학은 일종의 '괴상적이고 낭만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이다. 2장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최정희 친일소설은 일제하 여성의 다양한 동원의 역사 속에서도 특히 '어머니의 역할'에 집중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는 최정희의 여러 친일적 성격의 '산문' 등에서도 공통적으로 드러난다. 『君國의 어머니』(『대동아』, 1942.5)로 시작해 『軍國의 어머님들』(『半島の光』, 1944.2~4), 『軍國母性讚』(『半島の光』, 1944.6~7)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산문들만 보아도 문단에서 '여성/작가' 최정희에게 요구한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알 수 있게 된다. '君國은 곧 '軍國'이 되었으며, 『君國의 어머니』에 나타난 '부족한 어머니로서의 자기반성적 태도'<sup>39)</sup>는 곧 일본의 모범적인 어머니들에 대한 찬사로 연결된다. 철저한 어머니가 되어 아들들의 뜻을 보필해야 한다면서 "그래야만 우리도 남과같은 女 子구실을 할것ियो. 그래야만 우리도 남과같은 어머니의 구실을할것입니다."<sup>40)</sup> "훌륭한 사람 뒤에는 그 어머니의 남과 다른 노력이 있고 남과 다른 정신생활이 있고 남과 다른 성심성의의 자취가 남아있습니다."<sup>41)</sup>라고 외치는 최정희는, 1944년에 이르면 '훌륭한 어머니상'인 다섯 명의 '일본인 여성' 고무라 세이, 쓰쓰이 마쓰도지, 고바야시 가네, 오다 후키, 미스모도 하마의 일화를 『半島の光』에 연재한다. 네 아들을 모두 전장에 보낸 어머니,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늘 산뜻한 인상으로 힘을 북돋우어 주는 어머니, 전부인이 낳은 아들 넷에 자신이 낳은 아들 둘까지 성심성의껏 길러

39) 『대동아』에 실린 이 글은 최정희의 연설내용을 글로 정리한 것이다. 이 글이 중요한 이유는 '여명'과 '야국초'에 나타난 '군국의 어머니상'이 최정희 자신과 아들 사이의 실제 대화와 사건을 토대로 만들어졌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의 군국주의 체제에 '철저한 아들이 그렇지 못한 어머니를 비판하고, 본인이 전장에 나가 죽으면 울 것이냐고 물은 후 대답을 망설이는 최정희에게 "엄만 틀렸어"라고 말하며 실망하는 대목은 '야국초' 속 승일과 '나의 대화'에 고스란히 투영되었다.

40) 최정희, 『君國의 어머니』, 『대동아』, 1942.5, 118면.

41) 최정희, 『5월 9일』, 『半島の光』, 1942.7.(실천문학, 『[기획]발굴-최정희의 친일문학작품』, 실천문학사, 2004, 195면에서 인용)

제국군인으로 만든 어머니, 평생을 여직공으로 살며 부지런히 가족을 부양해온 어머니, 이들의 살뜰한 보살핌과 고생스러운 삶을 미화하면서 최정희는 이를 ‘모범된 어머니’, ‘훌륭한 일’로 의미화하기에 이른다.

#### 4. 최정희 소설 속 여성해방과 민족/친일 개념의 쟁투

여성해방과 친일의 매커니즘 사이에서 동요하는 최정희의 분열적 태도<sup>42)</sup>는 『2월 15일의 밤』, 『장미의 집』, 『야국초』에 드러나 있다. 적어도 이 세 작품에서는 여성해방의 가치가 민족해방의 우위에 있음으로 보아도 될 것이다. 『2월 15일의 밤』과 『장미의 집』에서 애국반장이 되고자 하는 선주에 반대하는 남편의 논리는 “난 그런 떠들썩한 일을 하는 여자가 싫어”<sup>43)</sup>라는 말로 대변된다. 이 소설들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두 사람 사이에서 벌어지는 ‘여성성’과 ‘아름다움’에 대한 개념논쟁이다. 특히 “여자는 가정이 직업이지 (……) 당신같은 여자에게 그런 일이 어울리지 않으니 그만 두라고 하잖아.”(50)라는 남성인물의 말을 통해, 여성의 영역과 역할을 가정 내에 제한하고자 하는 가부장제의 전통적인 태도가 엿보인

42) 이와 동일한 문제의식을 갖고 『야국초』를 분석한 연구로, 최경희의 『친일 문학의 또 다른 층위-젠더와 〈야국초〉』(『해방 전후사의 재인식1』, 책세상, 2006)가 있다. 이 글은 그동안 친일 문학 연구에서 ‘젠더’적 관점이 간과되어 왔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야국초』를 친일선전문 이상 것임을 밝히고자 한다는 목적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본고와 동일한 문제의식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이 작품의 친일협력의 선전적 서사가 자기 결정권을 향한 욕망을 에토스로 삼는 신여성에 관한 하위 텍스트와 맞물려 짜였다”(407)는 사실에 주목하고, “식민지 기성체제로 깊숙이 끌려들어가 힘없는 민중을 돌보지 않고, 심지어 그들을 희생시키기까지 한 엘리트 남성들에 대한 조선 민중의, 특히 여성들의 깊은 배신감이 은유적으로 드러난”(416)작품이라고 해석한 점에서 시각 차이가 있다. 나아가 이를 ‘조선의 어머니의 좌절감’을 드러낸 작품, 친일소설이 아닌 “위장의 방식으로 전달하는, 일종의 문학적 가장무도회”(426)로 의미화 한다는 점에서는 크게 변별점을 갖는다.

43) 최정희, 『2월 15일의 밤』, 『녹기』, 1942.4. (김재용·김미란 편역, 『식민주의와 협력-일제말 전시기 일본어소설 선집1』, 역락, 2003, 50면에서 인용)



다. 그렇다면 이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여성상은 어떤 것일까. 과거 선준은 “신의 노여움을 사서 바다에 구멍이 난 항아리에 물을 길어다 붓는 광장히 지친 여인상과 비슷한 여자가 좋다”(51)고 말한 적이 있다. 영세는 “씩씩하고, 건전하기보다 그 반대의 것을 즐기는 남편”<sup>44)</sup>이었다. 이는 연약하고 가련한 여성을 선호한다는 뜻이다. 선주나 성례는 이에 대해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는 여자의 모습이 보헤미안 같아서 좋은 때도 있었지만 요즘은 그런 모습의 여자보다는 하늘을 바라보며 저 하늘을 어떻게 지킬까 생각하는 여자가 훨씬 아름답게 보여요.”(51)라고 말한다. 이 짧은 소품에서 최정희는 진정한 ‘여성성’과 ‘아름다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드러내고 여성의 사회적 진출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자 했던 것이다. 『장미의 집』에서는 한층 강화된 논리를 보여주는 표현도 덧붙여졌다. “거저 멍하니 앉아서 하늘을 쳐다보는 여자의자태가 끝없이 아름다워되는 시대도 있었지만”<sup>45)</sup>라는 문장이 그것이다. ‘여성성’과 ‘아름다움’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기에 시대와 사회의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것이다. 실제 『매일신보』 1944년 기사를 보면, “우리들 새로운 시대의 여성은 ‘근로’하는 것이 생활의 전부요, 신앙인가 합니다. 싸우는 여성의 자태야말로 진이요, 선이요, 미라고 믿습니다.”<sup>46)</sup>는 문장이 등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 두 소설은 ‘남편이 허락한 애국반장’의 서사이며, 이는 곧 ‘남성이 허가한 여성의 사회진출’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특히 『장미의 집』에서 하루 종일 집안일을 하는 성례에 대한 남편 영세의 발언, “그게 노예근성이있어서 그런거야”<sup>47)</sup>나 여자다움을 내세워 성례의 사회진출을 반대하던 영세가, 사치스러운 아내 때문에 고민하는 자신의 친구 남식을 위로하기 위해 성례의 애국반장 일을 ‘허락’한다는 서사가 특히 그러하

44) 최정희, 『장미의 집』, 『대동아』, 1942.7, 151면.

45) 위의 글, 151면.

46) 『鵬翼과 熱闘의 處女들 ○○航空隊 訪問記』, 『매일신보』, 1944.9.21.

47) 최정희, 위의 글, 148면.

다.

‘여성해방’의 가치를 훨씬 더 입체적으로 보여주면서 서사적으로도 성공하는 사례로 『야국초』가 있다. 다음의 인용문은 이 소설의 마지막 대목이다.

이제 저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승일을 키우듯이 승일을 위해 들국화를 아름다운 꽃, 강인한 꽃으로 가꾸기로 했습니다. 그게 제게 하셨던 당신의 행위에 대한 복수가 될테니까요. 그럼 안녕히.<sup>48)</sup>

여기에서 ‘복수’는 무엇인가. 표면적으로 보면, 이 복수란 ‘임신한 나를 두고 처자식과 떠나버린 비정한 남자에 대한 복수’를 뜻한다. 또한 그 복수란 남자가 쉽게 낙태를 종용했던 그 어린 생명을 비열한 그와는 달리 인간미 있고 진정성 있는 훌륭한 인간으로 만들어내겠다는 의지, 즉 훌륭한 일본군으로 키워내겠다는 ‘원망의 승화’다. 그래서 그 실패와 좌절의 경험을 극복하기 위해 아들의 이름은 승일(勝一)이 된다. 기존 친일문학 연구에서 소설의 메시지를 분석하는 방식을 그대로 따라간다면, 이 소설은 전형적인 일본의 군국주의적 관점을 인간적인 서사를 통해 반영한 소설, 일본의 승리를 기원하는 승일(勝日)의 서사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런데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보면, 이 소설에서 ‘내가 당신을 상대로 하고자 하는 복수는 이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된다. 이 소설에서는 전반적으로 아들 승일과 그의 아버지인 ‘당신’을 오버랩 하는 중첩서술이 자주 나타난다. 함께 길을 걸을 때 똑같이 ‘나에게 손을 내미는 장면, 닳은 얼굴로 웃는 장면, 들국화를 꺾는 장면 등이 그러하다. 그때마다 나는 떠오르는 당신을 지우려 애쓰며, 그때와는 다른 나의 모습을 아들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이때 핵심적인 부분은

48) 최정희, 『야국초(野菊抄)』, 『국민문학』, 1942. 11.(김병걸·김규동 편, 『친일문학작품선집2』, 실천문화사, 1986, 186면에서 인용) 이후 인용면은 본문에 괄호로 표기하겠다.

‘나의 변화에 있다.

(1) “힘들지 않아?”하고, 당신은 제게 몇 번이고 물으셨습니다. 제가 “아니요”하고 고개를 저어보여도, 당신은 저의 약한 다리가 걱정되었던가 봅니다. 위태로운 외나무다리를 건널 땐 당신은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 설령 강으로 떨어져 익사한다 해도 당신과 함께라면 조금도 두렵지 않았습니다.(172)

(2) “어머니, 제가 손을 잡아드릴까요?”

목소리는 아직 어린애 그대로 입니다만, 제 손을 잡으려고 하는 그 태도라든지 눈매 같은 건, 언젠가 제 손을 잡고 외나무다리를 건너시려던 당신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혼자서도 갈 수 있어.”(……) “괜찮대두. 엄만, 아무리 위험한 데라도 혼자서 갈 수 있는 걸.”(177)

인용문 (1)과 (2)는 다정한 당신과 승일의 모습이 서술된 부분이다. 소설의 초반부와 중반부에 각각 등장한 이 대목은, ‘여자로써의 나’와 ‘어머니로써의 나’가 얼마나 다른 성격으로 묘사되고 있는지를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과거의 나는 당신이 내미는 아주 작은 친절에도 쉽게 마음을 빼앗기고, 언제든 쉽게 중심을 잃어 강으로 떨어질 수 있는 연약한 여성이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는다 해도 당신만이 지켜주신다면, 저는 행복했었겠지요.”(172~173)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 과거의 나는 인생을 남성에게 의탁하여 살고자 하는 마음이 컸다. 그래서 그가 자신의 아내와 자식을 버리고 나에게 오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수동적이고 가련한 여성인물이었다. 그러나 지금의 나는 과거와 결별하고, 아무리 위험한 곳이라도 혼자 갈 수 있는 존재로 성장했다. 이는 인물의 각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음의 대목에서 이는 더 효과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3) 언젠가 당신과 함께 들어서 이렇게 논길을 걷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들국화가 굉장히 많이 피어 있어 당신께선 그 꽃 한 송이를 꺾어 주시면서, “작고 가련한 꽃이지. 꼭 너 같아……” 하였습니다.(185)

(4) 승일이는 기어코 들국화 몇 뿌리를 뜯었습니다. 들국화는 뽑혀서도 의연히 빨갛지도 않고 보랏빛도 아닌 묘한 색채를 빛내면서 아름답습니다. “엄마, 내가 전쟁에 나가 싸우다 죽어도 이 꽃을 보고 울지 않지?” (……) 이제 저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승일이를 키우듯이 승일이를 위해 들국화를 아름다운 꽃, 강인한 꽃으로 가꾸기로 했습니다.(186)

위의 인용문은 이 소설의 제목인 야국초, 들국화를 뽑는 두 남자의 모습을 대비시키고 있는 대목이다. 들국화를 꽃으로 바라보는 ‘당신’과 뿌리째 뽑아 다시 심으려 하는 ‘승일’의 모습이 대비되면서 의미심장한 인상을 준다. 과거 남자는 ‘나’를 들국화의 꽃송이에 비유했다. 그것은 사랑의 추억이며, 그때 남자의 의해 나는 ‘작고 가련한 존재’로 의미화 되었다. 그러나 현재 나에게 있어 들국화는 ‘강인함’을 상징하는 것이다. 더 이상 과거의 가련하고 연약한 존재가 아닌, 강인한 한 인간으로 오롯이 서고자 하는 나의 의지가 이 대목에 담겨 있다. 그런 의미에서 당신에 대한 나의 복수란 곧 내가 나 자신으로 우뚝 서는 것이다. “당신의 행위에 대한 복수”(186)란 말에서 ‘행위’는 임신한 ‘나’를 버리고 떠난 야속한 행위로 볼 수도 있으나, 위에 인용된 부분을 통해 ‘나’를 작고 가련한 무엇으로 규정해버린 당신의 행위로 충분히 의미화 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때 ‘복수’는 누군가에게 단순히 보기 좋은 꽃송이로서가 아니라 땅에 단단히 뿌리를 내려 어디서든 다시 자랄 수 있는 의연한 존재가 되겠다는 스스로에 대한 다짐이며, 그런 의미에서 ‘들국화’는 곧 ‘나’다. 그래서 『야국초』는 ‘군국의 어머니’ 담론을 표면적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그 내부는 진정한 의미의 ‘여성해방’을 외치는 소설로 보아야 마땅하다.

## 5. 최정희 친일문학의 특수성 : 결론을 대신하여

전쟁을 직접 경험할 수 없는 여성작가의 입장에서, 실감나는 '전쟁소설'을 쓰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는 대부분의 경우 징병 및 징용을 피했던 조선의 남성작가의 경우도 마찬가지라서, 친일소설 자체에 일종의 피상성을 만들어냈다. 최정희의 친일소설은 대부분의 경우 여성인물을 주인공으로 삼고 '편지글'의 형식을 자주 차용하는 서술상의 특징을 보인다. 본고에서 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를 통해 당시 여성들이 총동원체제 하에서 동원된 실제 역사에 자세히 주목한 이유는, '사실'과 '문학'이 얼마나 뒤틀린 성을 갖고 있었는지, 또 거리가 있다면 얼마나 있었는지를 제대로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일제말기 '총동원'이라는 말이 보여주듯 당시 징용대상의 나이는 여성의 경우 40대, 남성의 경우 60대에 이르렀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친일문필활동에 투신한 모든 작가들이 바로 이 징병/징용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그들이 문학을 통해 구현하는 식민지배정책이란 피식민자의 지위, 실질적 경험부재에서 오는 한계 등으로 말미암아 추상적이고 낭만적인 구경꾼의 그것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작품과 사실의 대조를 통해 드러났다. 그래서 조선의 친일문인들은 끊임없이 이상적이고 계몽적인 서술자를 등장시키거나(이광수), 역사적 사실을 차용하여 은근하게 친일논리를 설파하는 방식으로 역사소설만을 쓰기도 했으며(김동인), 실제 전쟁에 참여했던 일본군인들의 수기를 바탕으로 전쟁소설을 창작하기도 하는 등(채만식) 자기만의 서술전략을 가졌던 것이다. 친일문학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다수의 작품을 창작한 여성작가라는 점에서 최정희가 구축한 친일논리와 서술전략은 학술적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본 논문을 통해 분석한 최정희의 친일문학은 크게 두가지 특징을 갖고 있었는데, 첫째는 타인의 말에 감화받는 인물형과 서사이다. 공통적으로 친일담론과 사상이 투철한 인물이 그렇지 못한 인물을 설득하고 가르치는 형태로, 소설은 결정적인 순간마다 직접적으로 사상을 전달하는

‘편지글’의 형식(『환의 병사』, 『야국초』)을 자주 차용하고 직접 연설자를 등장(『여명』, 『정용열차』)시키기도 했다. 둘째는 그러한 와중에 **여성의 지위에 대한 고민**이 항상 함께했다는 점이다. 여성의 각성을 중심주제로 하는 『야국초』나 자신의 사회적 진출을 위해 보수적인 남편을 설득하려 애쓰는 『2월 15일의 밤』, 『장미의 집』은 물론, 일본인 군인들에게 ‘조선적인 것’을 가르치려는 『환의 병사』의 여성인물 또한 그러하다. 그런 면에서 일제말기 친일문학연구에서 최정희(문학)만의 특수성은, ‘민족과 ‘여성’의 기표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한 “여류다움의 규정과 (재)전유의 실천 행위가 뒤엎힌 때 국면의 인정투쟁”<sup>49)</sup>이었다고 규정할 수 있을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신여성’ 또한 결국 ‘군국의 어머니’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피식민자-여성’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 작가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49) 공임순, 『최정희의 해방 전/후와 ‘부역’의 젠더 정치』, 『여성문학연구』46, 한국여성문학학회, 2019, 12면.

## | 참고문헌 |

## 1. 1차 자료

- 최정희, 『幻の兵士』, 『국민총력』, 1942.2.7.  
 \_\_\_\_\_, 『二月十五日の夜』, 『녹기』, 1942.4.  
 \_\_\_\_\_, 『黎明』, 『야담』, 1942.5.  
 \_\_\_\_\_, 『薔薇의 집』, 『대동아』, 1942.7.  
 \_\_\_\_\_, 『野菊抄』, 『국민문학』, 1942.11.  
 \_\_\_\_\_, 『정용열차』, 『半島の光』, 1945.2.  
 『대동아』, 『매일신보』, 『半島の光』

## 2. 2차 자료

## 1) 논문

- 공임순, 『최정희의 해방 전/후와 '부역'의 젠더 정치』, 『여성문학연구』46, 한국여성문학학회, 2019, 7-37면.  
 김양선, 『日帝 末期 女性作家들의 親日談論 연구』, 『어문연구』33-3,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5, 257-278면.  
 김효순, 『식민지기 조선인 여성작가 최정희의 문학과 전쟁동원 - 여성성과 전쟁동원 논리 결합양상을 중심으로』, 『일본연구』32, 중앙대학교 일본연구소, 2012, 292-313면.  
 박수빈, 『일제말기 친일문학의 내적논리와 회고의 전략 - 이광수, 김동인, 채만식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1-226면.  
 심진경, 『여성작가 친일소설 연구』, 『배달말』32, 배달말학회, 2003, 83-106면.  
 장미경·김순진, 『여성 작가 소설에서 본 內鮮一體 裝置 - 최정희 『幻の兵士』와 장덕조 『行路』를 중심으로』, 『日本語教育』51, 한국일본어교육학회, 2010, 183-195면.  
 최경희, 『친일 문학의 또 다른 층위 - 젠더와 〈야국초〉』,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1』, 책세상, 387-433면.  
 최유리, 『日帝 末期(1938~45年) '內鮮一體論과 戰時動員體制』,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1-205면.

## 2) 단행본

- 권보드래 외, 『문학을 부수는 문학들』, 민음사, 2018.

- 김병걸·김규동 편, 『친일문학작품선집2』, 실천문학사, 1986.
- 김복순, 『“나는 여자다”-방법으로서의 젠더-최정희론』, 소명출판, 2012.
- 김재용·김미란 편역, 『식민주의와 협력-일제말 전시기 일본어소설 선집1』, 역락, 2003.
- 이경훈 편역, 『한국 근대 일본어 소설선 1940-1944』, 역락, 2007.
-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일제협력단체사전-국내중앙편』, 민족문제연구소, 2004.
- 황수남, 『최정희 문학 연구』, 문예운동사, 2012.



<Abstract>

Study on Peculiarity of Choi Jeong-hee's  
Pro-Japanese Literature  
—Between the Signifier of ‘Nation’ and ‘Women’

Park, Subin

For this study, efforts were made to analyze how Choi Jeong-hee's pro-Japanese discourse was shaped through her works with Choi's six pro-Japanese novels which had so far been discovered and introduced and to figure out the struggle between concepts of ‘women's liberation’ and ‘nation / pro-Japanese’. The existing studies were focused on ‘pro-Japanese’ aspects of Choi Jeong-hee's pro-Japanese literature and in consequence, they failed to properly read the desire for female liberation operating within the text, or were focused on Choi's literature just within the ‘feminist’ perspective and failed to eliminate or signify Choi's pro-Japanese literature. This study was envisioned as a reaction for such cases. To this end, the study attempted to reveal the uniqueness of Choi Jeong-hee's pro-Japanese literature by comparing how the Total Mobilization System under Japanese rule actually consumed women and how ‘women-persons’ were embodied in Choi's novels. The study tried to highlight the desire for ‘female liberation’ which actually occupied the upper position over ‘nation’, in particular. Through this, the study is expected to clearly show the status of ‘women / writers’ in ‘pro-Japanese literature / research,’ which has not been fully revealed in studies of numerous male writers.

Key words: Choi Jeong-Hee, Pro-Japanese Literature, Total Mobilization System, Female Liberation, Struggle for Recognition, New Women, Mothers Of The Militant Nation

투 고 일 : 2020년 5월 17일

심 사 일 : 2020년 5월 21일-6월 11일

게재확정일 : 2020년 6월 12일

수정마감일 : 2020년 6월 26일